\* 1. 본인의 회사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역경을 너머 세계로>

제 첫번째 기업선정 기준은 직무 적합성입니다.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직장으로서의 근본적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소속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고용불안의 해소와 동시에 자아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번째 기준은 기업의 건실함입니다. 전도유망하지 않은 기업에 오래 머물고 싶다 하여도 그것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면 본인의 분야에 최선을 다해 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제 가치관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기준은 기업의 위기관리능력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도 위기시 본인의 규모를 감당치 못하여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기민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장과 백년대개의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국난을 타개하겠다는 가치로 일어나 세계 최대규모의 제철소를 보유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태생부터 고난의 연속임에도 지난 50년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노하우에 IoT, AI,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최적의 생산현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교육재단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포항공과대학교,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포항가속기연구소 등 대한민국 전문인재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대표적인 공적기업입니다. 학부생시절 경영데이터를 다루었던 경험과 정보통신장교로 복무했던 이력을 살려 4차산업혁명의 주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2.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빠르게 최적화하는 인재>

본사의 AI/Big Data 분야에서 공정의 혁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선정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등대기업' 인만큼 굴뚝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기존의 제강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IT 적 사고를 겸비해야 궁극적인 원료절감과 경영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생시절 경영정보학부에서 배우며 상경계열의 이론과 시각, 이공계열의 기술적인 인사이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산 분야와 생산관리를 비롯하여 경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기획을 배웠습니다. 최근에는 경영현장 일선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4차산업인재 육성교육의 일환으로 서비스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분석 교육 수료를 앞두고 있으며, 중간 프로젝트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영내 감시체계, 타격체계와 일상적인 병영복지에 통신ㆍ전기가 개입하지 않는 부분은 없었기에, 부대 전반의 운영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고, 자금집행, 자재구매, 협력업체 계약 등 넓은 범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다수의 성공경험은 향후 다른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경영혁신이라는 모델을 위하여 기민하게 제 자신의 가중치를 변모하고 어떤 프로젝트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인재로 본사에 기여하겠습니다.

\* 3.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과정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유능함은 두각이 아닌 시너지 발휘이다>

군인 시절 정보통신 소대장으로서 부대의 유무선 통신사무와 보안, 그리고 중간관리자로서 인력을 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업무로 당시 소속된 대대가 담당하던 60여 km에 걸친 십여 개가 넘는 소초와 시설을 현 작전상황에 맞게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지시와 인력과 예산 편성이 전무 상태로 추진된 개선사업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게 가용한 자원은 한달 남짓한 기간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열명의 소대원뿐이었습니다.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부터 하였습니다.

먼저 상급부대의 장비 및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소부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아웃소싱 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동업관계 구축으로서 통신설비, 감시설비 외적인 부분은 보다 전문적인 공병대대측의 협력을 요청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대략적인 결과물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처음 협업하는 두 조직간 팀워크를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협업요청은 모두 흔쾌히 받아들여졌고, 임무분장 및 조율을 통해 막연했던 업무내용도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충분한 기한내에 완성할 수 있었고, 작전수행이 편리해졌다는 평가와 지휘관의 표창, 소대원들의 포상 휴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듯, 위 경험처럼 거시적인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본사에서 완수하고 싶습니다.

\* 4. 최근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치와 책임>

현재 국내외 가장 큰 이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증유의 팬데믹(Pandemic) 바이러스의 등장에 단순 국민 건강보건의 문제를 너머 내 외수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히 추론할 뿐, 아무도 쉬이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해결과 예측의 유일한 열쇠는 '데이터' 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질병원인에 대한 학문인 '역학' 은 의료의 영역뿐이 아닌, 충격에 사회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기에 일종의 데이터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순간적으로 동원되므로 행동 심리학도 될 수 있기에 통계적 접근이 필수 불가결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진단키트역시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운용이 핵심이며, 정부에선 크게는 확산예측과 진료소 운용에서부터 작게는 원활한 공적 마스크 보급을 위해 공공데이터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포스코가 겪게될 세계적 파장은 분명 이번 사태가 끝이 아닐 것입니다. 스마트 전문역량 확보에 적극적인 포스코가 위상을 유지하려면 지금과 같이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위기관리에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기업 포스코에서 작게는 내부적 인프라 사고예방에서 크게는 거시적 인사이트를 획득에 기여하고 싶습니다.